이감 국어 모의고사

02

season 1

예비 평가 지문분석

[2023학년도 시즌1 제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4~9] 사회-예술 통합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이 실현된 르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

*** 지문 평가**

(가)에서는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을 설명한다면, (나)에서는 르페브르의 이론을 토대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물을 비평하고 있다. '재현의 공간'이 '공간의 재현'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가)에서 제대로 파악했다면 (나) 역시 제대로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사회학 - 르페브르
(나) 예술 - 건축학 - 르코르뷔지에
르페브르, 공간의 재현, 인지된 공간, 재현의 공간, 체험된 공간, 공간적 실천, 르코르뷔지에, 롱샹 성당

*** (가) 지문 분석**

 # 문단1 :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

1)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간은 그저 인간 사회에 주어진 자연 발생적인 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철학자 르페브르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공간이 사회적으로 창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공간이 사회적으로 창출된다는 '르페브르'의 관점은 공간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근대 이전까지의 관점과 분명히 대조된다.

2) 그에 따르면 공간이란 사회적 속성들을 지니며, 다양한 사회 관계망들의 형성을 촉발하기도 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 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새로운 정의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자연 발생적인 산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3) 사람들 간의 교류로 역사적 의미가 형성되어 왔고 그 의미로 인해 새로운 체험이나 실천이 표출되는 공간인 광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사람들은 광장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이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이기도 한다. 이렇듯 광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다.

4) 르페브르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간이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실천적 함의뿐 아니라 예술적 체험의 원천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앞으로 지문의 흐름이 '실천적 함의'와 '예술적 체험'이라는 큰 맥락으로 나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 문단2 : 공간 창출의 두 가지 차원

1)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의 창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중 하나는 A.**'공간의 재현'**이라는 차원이다.
⇒ 공간이 창출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따져야 하겠다.
⇒ 첫 번째 '공간의 재현'과 관련한 내용은 A로 표기하면서 읽어 나가자.

2) A.지배 집단에 의해 계획되거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축조된 공간이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개념화된 것이 바로 이 차원의 산물이며, 이를 A.**'인지된 공간'**이라 한다.
⇒ 지배 집단이나 전문가에 의해 창출된 공간은 '인지된 공간'이라 하는데……

3) '인지된 공간'은 대량 생산된 상품처럼 A.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탈색되어 있다. 또한 병원이나 학교 등을 A.익숙한 하나의 기호나 개념처럼 받아들이듯이 '인지된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A.그 속의 균형 잡힌 기능과 질서에 순응하게 한다.
⇒ '인지된 공간'은 하나의 기호이자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병원' 하면 대부분 하얀색 대형 건물이나 녹색 십자가를 떠올릴 것이다.
⇒ 생각해 보면, 사회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일종의 기호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할 테다. 다만 '순응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고려했을 때, 르페브르는 A에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겠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4) 공간의 창출을 이루는 또 다른 차원은 B.**'재현의 공간'**이다. 이는 B.사람들의 삶이 만들어 내는 각각의 순간들이 적층되어 형성되는 차원이다. 예컨대 어떤 추모의 일환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공연[→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 내는 각각의 순간들']이 연일 펼쳐졌던[→ '[그곳에] 적층되어'] 거리가 문화의 공간[→ '재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하자.
⇒ 두 번째 차원인 '재현의 공간'과 관련한 내용은 B로 표기하자. 앞으로 B가 A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간의 재현'이 지배 집단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것이라면, '재현의 공간'은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 내는 순간들에 의한 것이다. 한마디로 B는 A와 달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5) 르페브르는 이렇게 사람들이 B.오감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창출되는 공간인 '재현의 공간'을 B.**'체험된 공간'**이라 불렀다.
⇒ '재현의 공간'은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서로 즐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기에 '체험된 공간'이라고 부른다.

6) 동일한 곳에서의 체험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때의 B.체험 역시 획일적이지는 않다.
⇒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탈색된 A와 달리 B에서의 체험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A와 B의 대조점을 정리해 보자.

	A.**공간의 재현**	B.**재현의 공간**
주체	지배 집단, 전문가	평범한 사람들
형성 과정	계획과 설계	일상적 순간들의 적층
특성	균형 잡힌 기능과 질서 [→ 인지된 공간]	오감을 통한 다양한 체험 [→ 체험된 공간]

[주목] 결국 르페브르가 주장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점을 대표하는 개념은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재현의 공간'이다.

 # 문단3 : 공간적 실천

1) A.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기능대로 재현되는 공간이 '공간의 재현'이라면, '재현의 공간'은 주어진 기능이 제공하는 규범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B.사람들의 자유로운 [다양한] 체험에 의해 창출되는 공간이다.
⇒ 앞선 문단2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문장이다.

2) '재현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B.**'공간적 실천'**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창출된 '재현의 공간'은 '공간의 재현'과 병존하면서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공간은 '인지된 공간'이면서 '체험된 공간'이기도 하다.
⇒ 흥미롭다. 방금까지는 A와 B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사실 한 공간이 동시에 A면서 B일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계획된 기능대로 재현되는 공간인 병원은 '공간의 재현'에 해당한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매주 목요일마다 환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모임이 병원에 생겼다고 하자. 이 모임이 반복되면서 '공간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이 병원은 '공간의 재현'인 동시에 '재현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3)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이 확장될수록 우리의 삶이 다양해진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종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 특히 감상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은 '공간적 실천'의 경험을 확장해 준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감상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은 감상자들이 오감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여[문단2-5)] 그들을 '공간적 실천'으로 이끌 테고, 이에 '재현의 공간'이 새롭게 창출되면서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다양해질 것이다.

⇒ 이처럼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은 A보다 B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르페브르는 더 많은 '인지된 공간'에서 '공간적 실천'이 일어나길 바랄 것이다.

*** (나) 지문 분석**

 # 문단1 :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철학

1) 르페브르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가가 특정 기능을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간의 재현'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참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재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맥락 짚기] (가)에서는 공간 창출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 다루었으니, 이제 (나)에서는 '예술적 체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가)의 문단1-4)].

⇒ '공간의 재현'과 '재현의 공간'은 충분히 병존할 수 있다는 게 르페브르의 설명이었다[(가)의 문단3-2)].

2) 다만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건축은 효율성을 목표로 삼아 A.기능적 요소에만 충실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기능과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A.획일적인 공간으로 남았다.

⇒ 전형적인 아파트 공간을 떠올려 보자. 아파트는 효율적인 주거 기능에만 충실한 나머지 획일화된 구조를 띠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르페브르는 이를 '공간의 재현'만 있고 '재현의 공간'은 없는 건축이라 여길 것이다.

3) 건축가 **르코르뷔지에**는 이러한 건축 경향에 반발하며 현대 건축물의 주된 특징인 A.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

[맥락 짚기] 르페브르에 이어 새로운 관점 요소가 등장했다. (가)의 르페브르와 같은 관점일지 아니면 다른 관점일지 살펴야겠다.

⇒ 우선 '르코르뷔지에'는 A에만 충실한 건축 경향을 비판했다. 이는 A를 넘어 B가 더 확장되길 바란 르페브르의 생각과 결이 같아 보인다.

⇒ 다만 오해하지 말자. 르코르뷔지에가 A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 미흡한 설계로 10가구밖에 살지 못하는 아파트는 본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 잘못된 건축물일 뿐이다.

4) ……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B.'체험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롱샹 성당**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 건축가의 설계가 본디 '공간의 재현'을 형성했다면, 르코르뷔지에는 설계를 통해 '체험된 공간'을 더하려 한 셈이다.

⇒ 전자는 건축가의 설계가 주도한다면 후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간적 실천'이 주도하는 만큼, '공간적 실천'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롱샹 성당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주목] 롱샹 성당 건축의 핵심은 A와 B가 절묘하게 병존한다는 점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 문단2 : 롱샹 성당의 외부

르코르뷔지에는 롱샹 성당을 설계할 때 B.그곳을 찾는 순례자가 느낄 체험을 염두에 두었다. 어떤 원형(原形)을 보여 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당의 외형은 역사와 자연,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 듯하다. 보는 방향에 따라 게 껍데기, 혹은 기도하는 손 등 다양한 조형 형태가 연상된다. 순례자는 성당 외부를 돌아 입구를 향해 걸으면서 B.성당의 모습이 변해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 롱샹 성당의 외부에 대한 묘사다. 다음의 실제 모습들을 보며 순례자가 외부를 돌아 입구로 들어가기까지의 장면을 상상해 보자.







⇒ 게 껍데기, 기도하는 손 등 다양한 연상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체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체험된 공간'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외형의 설계에 이렇게 반영된 것임이 틀림없다.

 # 문단3 : 롱샹 성당의 내부

1) 롱샹 성당의 내부와 외부는 상당히 두꺼운 벽에 의해 구획된다. 이 벽에 나 있는 크고 작은 창들은 내부와 외부에서 볼 때 크기가 서로 다른데, 외부에서 내부로 갈수록 커지는 창도 있고 작아지는 창도 있다.

⇒ 성당을 돌아 입구로 들어갈 때, 벽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창들이 배치되어 있다. 더군다나 같은 창이라도 어느 위치에서 보는지에 따라 창의 크기가 서로 다른데……

2) 어떤 빛은 점점 커지는 창을 타고 확산되며, 어떤 빛은 안쪽으로 응집되어 선명하게 빛난다. 게다가 다양한 색깔을 띤 창을 통해 서로 뒤섞인 빛은 보는 이의 감각을 쉴 새 없이 자극한다.

⇒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창의 크기가 달라 어떤 빛은 확산되고 어떤 빛은 응집되는 느낌을 준다. 다음의 성당 내부 사진을 보면 확산되는 빛과 응집되는 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질 것이다.



3) 그 빛들은 마치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 듯 조화로운 것이어서, 구획되어 있는 각각의 내부 공간이 지닌 A.종교적 기능을 충실하게 뒷받침한다.

⇒ 문단1-3)에서도 강조했지만, 르코르뷔지에는 현대 건축의 주된 특징인 '공간의 재현'을 통한 기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런 다양한 색채의 빛들은 A에 해당하는 종교적 기능을 뒷받침하여 질서를 견고히 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기>에 소개된 건축물인 '폴링워터'와 크게 대조되는 지점이다.].

4) 또한 밀폐되어 있는 내부 공간에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색채에 대해 느끼는 B.체험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같은 시점에서조차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다가온다. 어떠한 높이와 방향에서 바라보는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속도로 걸음을 옮기는지에 따라 빛들의 울림이 달리 느껴지는 것이다.

⇒ 조화로운 빛은 A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시간에 따라,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만큼 B에도 기여한다. 르페브르가 추구한 바를 르코르뷔지에가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가 특히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 다음의 그림을 2)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같은 공간임에도 시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5) 이처럼 A.공간이 지니고 있는 기능[→ 종교적 기능]에만 주목하도록 하지 않고 순례자의 '공간적 실천'을 유도하여 B.개별적이고 사적인 체험[→ 보는 이들이 변해 가는 성당의 모습, 각기 다른 빛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롱샹 성당은 르페브르가 말한 '체험된 공간'을 온전히 실현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르페브르는 롱샹 성당이야말로 A만이 아니라 B가 함께 병존하고 있는 탁월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문단4 : 롱샹 성당의 의의

1) 롱샹 성당은 교회 건축이 중세에서부터 유지해 온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기존 교회 건축은 중세로부터 이어진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등으로부터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롱샹 성당은 완전히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또한 일상의 주체들이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A.기능의 차원을 넘어 B.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롱샹 성당이 교회 건축을 넘어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유이다.

⇒ 앞서 (가)를 읽은 우리 입장에서는, '체험된 공간'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롱샹 성당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인문

동물의 도덕적 지위

*** 지문 평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관점과 이를 반박하면서 등장하는 플루하르의 관점을 비교해 가며 읽어야 한다. 특히 문단3에서 비판과 반박이 어떤 식으로 교차되면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동물 윤리

계약론적 도덕관, 캐루더스, 플루하르, 가장자리 인간, 영역 성질, 감응력, 유해 수용 체계

***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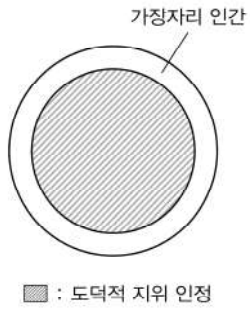
1)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그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뜻한다.
   ⇒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만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직관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2) 기계나 인형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고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
   ⇒ 이 역시 우리의 직관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갈리는 것 같으나……
3) …… 동물의 경우에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진다.
   ⇒ 동물의 경우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한다.

 # 문단2 : 계약론적 도덕관 – 동물의 도덕적 지위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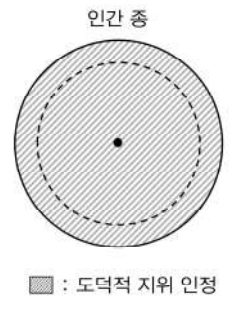
1) 근대의 사회 계약설에 기초한 **계약론적 도덕관**에 따르면 도덕은 합리적인 인간들이 합의한 묵시적 계약에서 유래한다.
   ⇒ 가장 먼저, '계약론적 도덕관'에서는 도덕적 지위가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타인에게 어떤 도덕적 요구[→ 자신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를 하려면 나도 같은 요구[→ 타인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데, ……
   ⇒ 내가 타인에게 도덕적 요구를 기대하려면 나 역시 타인에게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3) …… 합리적 개인들은 이러한 묵시적 계약[→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2)와 같이 상호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 굳이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호 간에 도덕적 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분명 동의할 것이다.
4) 대표적인 계약론자인 **캐루더스**에 의하면, 동물은 계약에 합의할 의사 능력을 지닌 합리적 존재가 아니므로 도덕관념을 형성할 수 없으며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도 도덕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 만약에 동물이 '합리적 존재'라서 2)와 같은 도덕적 요구에 대한 상호 간의 기대가 가능했다면 동물 역시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겠지만, 동물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 문단3 : 플루하르와 계약론자 간의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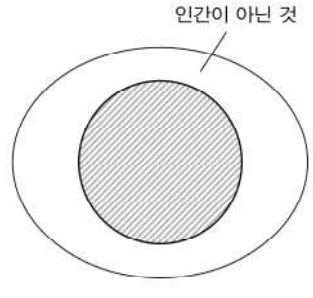
1) 그러나 윤리학자 **플루하르**는, 계약론적 도덕관이 갓난아이나 중증 환자처럼 합리적 의사 능력이 없는 **'가장자리 인간'**의 도덕적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가장자리 인간이 합리적 의사 능력이 없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의 수혜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계약론자를 비판하는 플루하르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점의 어떤 근거를 공격하는지에 집중해야 하겠다.
   ⇒ '계약론적 도덕관'은 동물은 인간과 달리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가장자리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 이는 인간임에도 도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는, 우리의 상식과 위배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2) 이에 계약론자들은 **'영역 성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비판에 대응하였다. 그들은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이면 그것이 중심에 가깝게 있든 가장자리에 있든 모두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듯이, 인간 종(種)이라는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가지는 존재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간의 영역을 하나의 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원의 테두리 근처에 있는 '가장자리 인간' 역시 어쨌든 인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자리 인간'도 도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반박인데……



3) 그러나 플루하르는 영역 성질 개념은 특정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차별하는 인종 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용인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 플루하르의 재반박이다. 영역 성질 개념을 토대로 인간의 외연을 정하는 순간, 어느 지점까지는 '인간'이 되고 또 어느 지점부터는 '인간이 아닌 것'이 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문단4 : 플루하르가 제시한 조건 – 감응력

1) 플루하르는 종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응력'**을 제시하였다. 감응력은 고통을 느끼는 순간순간의 감정과 관련되므로 합리적 의사 능력과 무관하다.
   ⇒ 도덕적 지위의 조건에 대한 플루하르의 주장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목] 이는 계약론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 그에 따르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갖는 좋고 싫음의 느낌은 다른 존재의 느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이는 감응력을 가진 존재는 고유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물이더라도 감응력을 가진다면 [고유한 존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논리를 잘 따라가 보자. 플루하르가 생각하기에 도덕적 지위는 '고유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응력을 가진 존재'는 곧 '고유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며,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문단5 : 감응력에 따른 도덕적 지위 부여의 범위

1) 감응력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윤리학자들도 모든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 중에는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특이한 유해 수용 체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
   ⇒ 감응력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유는 고통의 순간에 발생하는 좋고 싫음의 느낌이 그 존재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2) 동물의 **유해 수용 체계**는 자신에게 유해한 자극을 신경 말단에서 중추 신경계로 전달하는 체계인데, ……
   ⇒ 이건 '특이한' 유해 수용 체계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라, 동물의 일반적인 유해 수용 체계에 대한 설명이겠다.
3) …… 회피 반사를 하는 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해로운 자극에 대한 유해 수용 체계의 활동만 있을 뿐 그런 자극에 고통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고통을 못 느낀다면 고유한 존재 가치를 지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까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윤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목] 잘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개의 유해 수용 체계는 고통의 느낌을 동반하는데, 그렇지 않은 체계를 지닌 동물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 1)의 '특이한 유해 수용 체계'에 해당하는 설명이겠다. 이렇듯 고통을 못 느끼는 동물의 경우에는 감응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진다.
   [참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2017학년도 6모>의 '동물 실험의 찬반 논쟁으로 살펴본 유비 논증' 지문을 떠올렸으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일 테다. 해당 지문의 문단(라)에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동물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만약에 플루하르의 주장을 수용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한다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다. "몸을 움츠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이한 유해 수용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회피 반사를 했을 뿐, 고통의 느낌을 동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과학

기체의 단열 팽창

*** 지문 평가**

'인력'과 '반발력'에 따른 기체의 상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 등을 정리해 주면 되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다. '역전 온도'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만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니 제대로 읽어 낼 수 있도록 하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화학 - 단열 팽창

단열 팽창, 인력, 반발력, 온도,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줄-톰슨 계수, 역전 온도

*** 지문 분석**

 # 문단1 : 화제 제시

1) 입을 크게 벌리고 손바닥에 입김을 불었을 때보다 입을 오므리고 불었을 때 더 차갑게 느껴진다. 오므린 경우에 입김이 입 밖에서 갑자기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 입김은 팽창에 의해 온도가 낮아진다는 사실만 챙기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2) 그런데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를 분사하여 저압 상태로 팽창시킬 경우에는 입김을 부는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압축되었던 공기가 팽창한다는 점에서는 1)과 유사한 상황이나,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라면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맥락 짚기] 공기와 수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내는 것이 지문의 핵심이겠다.

 # 문단2 : 단열 팽창에서의 온도 변화 양상

1) 열의 출입 없이 기체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 한다. 입김을 부는 경우나 압축된 수소를 팽창시키는 사례는 모두 외부와의 열 교환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없지만 부피를 빠르게 변화시켜 열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주지 않으므로 단열 팽창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단열 팽창'의 정의다. 문단1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단열 팽창으로 간주된다.

2) 압축된 기체가 단열 팽창할 경우 해당 기체의 종류와 초기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온도 변화의 방향에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영향을 미친다.

⇒ '해당 기체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입김'의 경우와 '수소'의 경우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 다만 아직까지 '초기 온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읽어 보자.

 # 문단3 :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기체의 단열 팽창

1) 기체 분자 간의 상호 작용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고, ……

⇒ 표현 그대로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을,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을 뜻한다.

2) …… 산소나 질소와 같은 대부분의 기체는 상온에서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인력이 크게 작용하는 기체는 압축된 상태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물리적으로 **온도**란 분자들이 지니고 있는 내부 에너지 중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즉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할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 '대부분의 기체'는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압축된 상태에서는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일부라는 사실도 짚어 두자.

3) 기체가 단열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고 외부와 열 교환도 없으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내부 에너지가 보존된다.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

⇒ 문단2 같은 단열 팽창의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내부 에너지 = 운동 에너지 + 위치 에너지

4) …… 대부분의 기체는 단열 팽창의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대부분의 기체는 단열 팽창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므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도는 낮아진다.

대부분의 기체	
상온에서	인력 > 반발력, 운동 에너지 큼
단열 팽창 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 온도↓

⇒ 문단1-1)의 '입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 문단4 :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기체의 단열 팽창

1) 이와 달리 수소나 헬륨은 상온에서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는 기체이다. 열 교환 없이 수소나 헬륨을 압축시키는 경우 분자 간의 반발력이 서로의 움직임을 구속하여 분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신 반발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에 놓인다.

⇒ 대부분의 기체와는 반대로[문단3-2)], '수소'나 '헬륨'은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2) 이러한 상태의 수소나 헬륨을 단열 팽창시키면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져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며, 분자 간에 미치는 반발력이 약해짐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즉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나 헬륨을 상온에서 단열 팽창시킬 경우 산소나 질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문단3-4)와 정반대로 이해해야겠다.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수소나 헬륨은 단열 팽창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온도는 높아진다.

수소, 헬륨	
상온에서	인력 < 반발력, 위치 에너지 큼
단열 팽창 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 온도↑

 # 문단5 : 줄-톰슨 계수와 역전 온도

1) 이처럼 기체가 단열 팽창할 때 온도가 변하는 현상은 1854년 줄과 톰슨의 실험에 의해 발견됐다. 그래서 기체의 단열 팽창 시 단위 압력당 온도의 변화량을 **줄-톰슨 계수**라고 부른다. 특정한 온도에서 어떤 기체의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이면 단열 팽창 시 온도가 낮아지고, 줄-톰슨 계수가 음의 값이면 온도가 높아진다.

⇒ 기체는 특정한 온도에서의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에 따라 단열 팽창 시의 온도 변화 방향이 결정된다.

줄-톰슨 계수 양의 값 ⇨ 단열 팽창 시 온도↓ 줄-톰슨 계수 음의 값 ⇨ 단열 팽창 시 온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상온에서 대부분의 기체는 양의 값, 수소나 헬륨은 음의 값을 줄-톰슨 계수로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온에서 수소나 헬륨의 줄-톰슨 계수는 음의 값을 지니지만 아주 낮은 온도[→ '초기 온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서는 양의 값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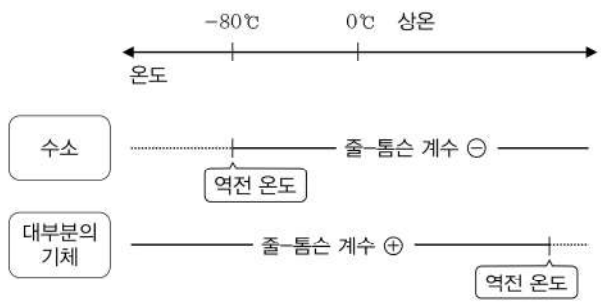
⇒ 앞선 문단에서는 상온에서 수소나 헬륨의 줄-톰슨 계수가 음의 값을 지닌다[→ 단열 팽창 시 온도가 상승한다]는 내용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양의 값을 지닌단다. 새로운 내용이니 일단 좀 더 읽어 보자.

[맥락 짚기] 문단2-2)의 '초기 온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훌륭하다.

3) 실제 수소의 경우 193K(영하 80℃) 이하의 온도에서는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이 된다.]. 이처럼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따라 특정 온도를 경계로 기체의 단열 팽창에 따른 온도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온도를 **역전 온도**라 한다. 역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단열 팽창할 때에는 온도가 상승하며[→ 줄-톰슨 계수 음의 값], 역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단열 팽창할 때에는 온도가 하강한다[→ 줄-톰슨 계수 양의 값].

⇒ 마지막에 꽤나 까다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기체는 '역전 온도'에서 줄-톰슨 계수의 음과 양이 바뀌며, 이에 따라 단열 팽창에 따른 온도 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주목] 역전 온도를 기점으로,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줄-톰슨 계수가 음의 값이 되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이 되는 것이다.



⇒ 다만 기체의 종류에 따라 역전 온도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기체는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역전 온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상온에서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이 된다.].

⇒ 반면 수소, 헬륨 등의 기체는 역전 온도가 매우 낮아서, 상온[→ 수소, 헬륨의 역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줄-톰슨 계수가 음의 값이 된다. 따라서 수소의 경우 온도를 역전 온도보다 낮아지게끔 낮춘다면 대부분의 기체와 마찬가지로 줄-톰슨 계수가 양의 값이 될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현대시

(가) 신석정, 「대바람 소리」

*** 작품 평가**

잔잔하게 흐르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건져야 할 의미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찬찬히 읽어 보자.

*** 작품 분석**

 # 제1연 : 창을 흔드는 대바람 소리

대바람[→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 청각적 심상]
들리더니
소소(蕭蕭)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바람 부는 날이고 화자가 방에서, 창을 흔들며 지나가는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장면이다. '들리더니', '흔들더니'로 각운(脚韻)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반복하면서 변형하는 반복과 변형 기법도 나타나 있다.

 # 제2연 : 눈이 올 듯한 겨울 풍경

소설(小雪) 지낸[→ 계절감]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시각적 심상].

⇒ 소설(小雪)이 지났다니까 음력으로 11월 22일 이후 어느 겨울날의 풍경이다. 날은 흐리고 구름이 끼어서 '미닫이'에 그늘이 진다. 화자는 지금 방 안에서 [바람과 어우러진] 방 밖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 제3연 : 무료한 일상

국화 향기 흔들리는[→ 후각적 심상]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지루한 상황]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 제2연까지의 바깥 분위기와 사뭇 대조된다. 국화가 놓여 있는 방 안의 분위기가 그려지는데 지루하고 심심한 일상의 모습이다. 잠이 오면 자고, 깨면 앉아서 글이나 좀 보고 하는 날들인 것이다. '그저 그런 날'은 '무료히'와 연결되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 준다.

⇒ 바깥은 바람과 구름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방 안에는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다. 화자는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운 바깥세상에서 벗어나 방 안에서 고고한 정신을 표상하는 국화를 키우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무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참고] 국화는 조선의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군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화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하여, 서리 내리는 계절에 피어난다는 점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고고한 절개를 표상한다.

 # 제4연 : 문득 읽은 「낙지론」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 답답함과 무료함 속에서 방을 거닐던 순간에 문득 병풍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참고] 「낙지론」은 중국 후한 때의 중장통이 지은 글이다. 중장통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평생 향촌에 묻혀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낙지론」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해서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던 시대에 벼슬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과 시를 향유하며 자연과 우주를 사색하며 사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 제5연 : 자족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

그렇다![→ 확신]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그릴지언정[→ 빈한한 삶]
— 「어찌 제왕(帝王)의 문(門)에 듦[→ 벼슬에 나아감]을 부러워하랴」

⇒ 제3연에서 무료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낙지론」을 읽으면서 해소되고 있다. 화자는 「낙지론」의 글귀에 기대어 부나 명예를 위해 바깥세상에 나가지 않은 채 방에서 국화를 키우며 살아가는 자신의 긍지를 표현하고 있다.

 # 제6연 : 대바람 소리에 실려 오는 거문고 소리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대나무 숲의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려온다. 제1연에서 화자는 대바람 소리를 쓸쓸하게만 들었는데, 제6연에서는 대바람 소리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는다. 「낙지론」을 읽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거문고 소리'는 '대바람'과 서로 호응하는 이미지이다. 한가롭고 무료하지만, 맑고 고상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선비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7~30] 고전시가

(나)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수록 지문 평가**

노년에 이른 작가가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 은거하며 지은 은일 가사로, 이제는 고향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시름없이 자연을 즐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 토막1 : 낙향하게 된 과정과 소회

공명(功名)이 힘이 이셔 십 년을 분주(奔走)ᄒᆞ니

→ 명예에 대한 욕심이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십 년을 분주하게 사니

⇒ 높은 관직에 올라 얻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십 년 동안 바쁜 벼슬살이를 했다는 말이다.

천 장 홍진(千丈紅塵)에 검은 머리 다 세거다

→ 길고 긴 속세에서의 삶에 검은 머리가 다 세었구나.

전원(田園)이 거칠거든 송국(松菊)을 뉘 가꾸며

→ 전원이 거칠거든 솔과 국화를 누가 가꾸며

⇒ 고향 집을 오랫동안 버려두었다는 뜻이며, 이제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 소나무와 국화를 가꾸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함축한다.

구맹(鷗盟, 낙향하여 갈매기와 벗하며 살겠다는 약속)이 식었거니 학원(鶴怨, 강호에 묻혀 살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학의 원망)이라 업슬쏘냐

→ 고향에서 살겠노라는 갈매기와의 맹세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으니 학의 원망이 없겠는가.

⇒ 갈매기에게 말했던 [뜨거운] 맹세가 이미 차갑게 식어 버렸다는 말은, 화자 자신이 과거의 다짐을 지키지 않은 채로 긴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다. 갈매기와 학, 즉 고향의 자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와 같은 설정은 고전 시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여관(旅館) 청등(靑燈)에 장석음(莊舃吟, 타향살이의 고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노래)을 제 뉘 알리

→ 여관의 푸른 등불 앞에서 고향을 그리던 슬픈 노래를 누가 알겠는가.

⇒ 자신이 타향에서 벼슬살이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었다는 것이다.

벼슬길에 풍랑이 졸연(猝然)히 니러나니

→ 벼슬살이에서 겪는 험한 일이 갑작스레 생겨나니

어설픈 이내 몸이 죄(罪)ᄂᆞᆫ 어이 지었던고

→ 어설픈 이내 몸이 죄는 어찌하여 지었는가.

태평 시절 허물 얻어 버려진 몸 되야시니

→ 태평한 시대에 허물을 얻어 버려진 몸이 되었으니

더디고 더딘 행색(行色)으로 도라본들 어이ᄒᆞ리

→ 몹시 더딘 행색으로 돌아본들 어찌하겠는가.

⇒ 관직 생활 중에 풍파를 겪고 죄를 지어 이미 가망이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떠나기를 주저하며 관직에 미련을 둔다 한들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호(西湖) 구업(舊業)(= 고향에서의 삶을 의미함)에 필마(匹馬)로 도라오니

→ 서호의 옛집으로 한 필 말과 함께 돌아오니

적막ᄒᆞᆫ 황촌(荒村)애 무너진 초가(草家)뿐이로다

→ 적막하고 황폐해진 마을에 부서진 집 몇 칸뿐이로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경치와 즐길 거리를 노래하는데, 수록 지문 부분은 겨울의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 토막2 : 겨울의 경치

강교(江橋) 찬 나모에 저녁 빗치 짙어 가니

→ 강에 놓인 다리의 차가운 나무에 어둠이 짙어지니

가마귀 ᄂᆞ라들고 푸른 뫼히 멀리 뵌다

→ 까마귀는 [둥지 찾아] 날아들고 푸른 산은 멀리 뵌다.

시름을 못 금ᄒᆞ야 휘ᄑᆞ람 길게 불고

→ [한가한] 시름을 못 말리어 휘파람을 길게 불고

긴 대나무 의지ᄒᆞ여 ᄃᆞᆯ빗츨 기다리니

→ 긴 대나무 의지하여 달빛을 기다리니

심술구즌 열구름이 가릴 것은 무ᄉᆞᆷ 일고

→ 심술궂은 지나는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장풍(長風)이 야단스레 하ᄂᆞᆯ흘 조히 쓰니

→ 센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하늘을 깨끗이 쓰니

일편 빙륜(一片氷輪, 한 조각 얼음으로 만든 바퀴. 겨울철의 달을 이름)이 ᄆᆞᆰ은 빗치 예와 같도다

→ 한 조각 겨울 달이 맑은 빛이 예와 같다.

온 산과 골짜기에 슬ᄏᆞ지 ᄇᆞᆰ아시니

→ 온 산과 골짜기에 실컷 밝게 비추니

단대(壇坮) 늙은 솔의 가지ᄅᆞᆯ 헤리로다

→ 대 위의 늙은 솔이 가지[의 개수]를 헤아릴 정도[로 잘 보인]다.

성긴 주렴 고텨 걷고 기픈 밤의 앉았으니

→ 성긴 발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동봉(東峯) 도든 ᄃᆞᆯ이 서령(西嶺)에 다 지도록

→ 동쪽 봉우리에 돋은 달이 서쪽 언덕에 저물도록

처마 난간 다 빗최어 침석(枕席)에 쐬야시니

→ 처마에 다 비추어 잠자리에 쏘였으니

넉시 다 ᄆᆞᆰ으니 ᄭᅮᆷ엔들 이즐쏘냐

→ 넋이 다 맑으니 꿈엔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쏘냐.

어와 이 청경(淸景) 값이 있는 거시런들

→ 어와, 이 맑은 경치가 값이 있을 것이라면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分)으로 들여오랴

→ 적막하게 닫힌 문에 내 분수로 들어오랴.

사조(私照) 업다 호미(=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는 말씀이) 거즌말 아니로다

→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는 일이 없다 함[→ 햇빛과 달빛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비춘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띳집 처마에 빗쵠 빗치 옥루(玉樓)라 다ᄅᆞᆯ쏘냐

→ 초가지붕 비친 달빛이 옥루라고 다를쏘냐.

⇒ 화자가 있는 곳을 비추는 달빛이나 임금이 있는 대궐을 비추는 달빛이나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ᄆᆞᆰ은 술통 밧삐 열고 큰 잔에 ᄀᆞ득 부어

→ 맑은 술통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竹葉) ᄆᆞᆰ은 술을 ᄃᆞᆯ빗 조차 기울이니

→ 죽엽주 맑은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니

표연(飄然)ᄒᆞᆫ 일흥(逸興)이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 가볍고 세속을 벗어난 흥취에 웬만하면 날 것 같다.

⇒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